

윤달, '수행·나눔 문화' 확산

기복 벗어나 참선·장기기증 서약 등 실천 중시

미신과 기복신앙에 갈려있던 윤달 풍습이 바뀌고 있다. 아직은 미풍 수습이지만 윤달을 수행과 신행, 나눔을 실천하는 달로 승화시켜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윤달은 음력 한달 평균이 29.5일로 한달이 30일 또는 31일인 양력보다 짧아 이를 맞추기 위해 고안된 달이다. '윤달에 수(壽衣)를 마련하면 장수하고 결혼이나 이사하면 손을 탄다'는 속설로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수의가 등장하는 등 윤달을 상술에 이용해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조선 순조 때 발행된 세시풍속서인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에서는 '윤달은 택일이 필요 없어 결혼하기에 좋고, 수의를 마련하기도 좋다. 모든 일을 꺼리지 않는다'라고 전할 뿐이다.

불교에도 윤달이면 생전예수재를 지내고, 삼사순례를 하는 등 윤달 풍습이 전해지고 있다. 생전예수재는



도선사는 윤달을 맞아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바른 마음으로 보살행 실천을 다짐하기 위해 '국태인안 기원 고승 초청 대법회'를 마련했다. 사진=권형진 기자

흔히 '살아있는 49재'라고 불리며 죽기 전에 업장과 부귀 복덕을 미리 닦는 의식이다. 그러나 이 같은 생전

예수재가 기복신앙으로 치우친 경향이 있어 만해 스님이 <불교유신론>에서 '예수재 폐지론'을 주장하는

등 그동안 비판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불교계 곳곳에서는 윤달을 보람찬 일로 채우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윤달은 없던 것이 공짜로 생긴 날이므로 윤달 풍습의 본 뜻을 살려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이웃을 위해 봉사한다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생전예수재의 변화다. 서울 봉은사주지 원혜는 2월 27일부터 시작하는 생전예수재를 '참회하고 공덕 짓는 예수재'를 주제로 한 '참살림 수행결사'로 진행하고 있다. 생전예수재 기간동안 가족참선, 5계 지키기, 지장기도 등을 매일 실천하고 헌혈, 장기기증·사후 시신 시약 등의 보살행으로 결사를 회양하게 된다.

서울 도선사(주지 혜자)도 생전예수재 및 49일 지장기도 법회에 맞춰 4월 13일까지 매주 화요일 '국태인안 기원 고승 초청 대법회'를 마련했다. 도선사의 고승 초청 대법회는

큰 스님들의 가르침을 통해 불자들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바른 마음으로 보살행 실천을 다짐하기 위한 자리다.

윤달을 참회와 불우이웃을 돕는 달로 삼는 곳도 있다. 대전 광수사(주지 세운)는 21일간의 윤달 신중참회기도를 4월 6일 입재한다. 참회기도는 자기 성찰을 통해 업장을 소멸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에 때문이다. 청주 흥덕사(주지 정은)에서는 3월 21일 예수재를 자비만행경제적 여유가 없는 달동네 가족들을 위해 무료로 생전예수재를 지내 주기도 한다. 회향일에는 달동네 가족들을 초청해 무료 이발을 실시하고, 소년소녀가장과 결식아동, 독거노인을 위한 무료급식도 제공한다. 또 한국불교전국여성사회(회장 성순경)는 그동안 윤달마다 꾸준히 진행해온 생전예수재 수익금으로 불우이웃을 돕는 행사를 올해에도 계획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법산 스님(동국대 불교대학장)은 "윤달이라고 마음바탕이 변하는 것이 아닌 만큼 참회 기도를 통해 부처님 말씀을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특히 봉사라는 보시행은 업장을 소멸함과 동시에 사회적으로 공덕을 베풀 수 있어 금상첨화"라고 평가했다.

오영진 기자 e.exist@buddhapia.com

"수행·교화 중심 도량 가꿀터"

인터뷰 ▶ 법주사 새 주지 도공 스님

지난 2월28일 조계종 제5교구본사 법주사 신중총회에서 도공 스님이 새 주지로 선출됐다.

법주사 교구의 발전에 대해 스님은 "수행, 포교, 교육 각 분야에서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온 좋은 점은 살리되, 고질 필요가 있거나 보완해야 할 점은 면밀하게 검토해 구체적인 마련할 생각입니다. 다만 이런 작업은 교구 스님들의 뜻을



불교의 중심지로 발돋움시키고, 지역 현안에도 적극 참여하겠다는 복안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도공 스님은 신도회 활성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교구본사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안정 속의 개혁을 추구할 것이며, 갑작스럽고 큰 개혁보다는 교구의 안정과 화합을 토대로 차근차근 변화를 유도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제가자 수련장 마련 지역 현안 적극 참여

우선 수행과 교육 분야에서 도공 스님은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나설 계획이다. 법주사 금요문도의 선 수행 기풍을 그대로 이어 스님들이 수행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제가불자의 수행을 돕기 위해 수련장을 만들 생각이다.

지역불교 활성화를 위한 복안도 제시했다. 법주사를 충청지역

1973년 탄성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법주사에서 월산 스님과 석암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와 비구계를 수지한 도공 스님은 청주 불교방송사장과 제12대 중앙종회의원을 역임했으며, 현재까지 청원 현안사 주지 스님을 맡고 있으면서 13대 종회의원으로 활동해 왔다.

법주사·현영우 기자

디지털방송 시대 '눈앞' 7월부터 상용 서비스

DMB(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 관련 방송법 개정안이 3월 2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7월 상용서비스가 시작돼 교계 방송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위성DMB는 손바닥 크기의 단말기를 통해 비디오, 오디오 방송을 제공한다. 따라서 이 서비스가 상용화되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디지털 방송을 시청하거나 고음질의 음악 청취가 가능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처럼 뉴스, 증권, 날씨 등 개인의 취향에 따라 각종 데이터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본격적인 위성DMB 시대를 맞아 불교방송, 불교TV 등 교계 방송사도 대응책 논의에 한창이다. 속명여대 정보방송학부 도준호 교수는 "즐거웠던 프로그램이 되기 위해서는 결국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관건이다"라고 강조했다.

한상희 기자

인문·고전·생태 등 강좌 개설

조계사, 불교교육 전문·대중화

'한국불교 1번지' 조계사가 불교 공부의 전문화·대중화를 위해 '조계사 아카데미'를 개설해 관심을 끌고 있다.

조계사(주지 지홍)는 3월 16일부터 '현대사상과 불교(10주)', '조단집'으로 읽는 선종사(12주)', '불교 한시로 배우는 한문교실(12주)', '법상을 다시 차리자(10주)', '불교 의례의 의미와 실천(12주)' 등 총 5개 강좌를 잇달아 개설한다.

특히 '현대사상과 불교' 강좌는 현대사상을 대표하는 인물들의 철학적 핵심과 그 불교적 의미를 살피기 위해서 불교 공부의 영역을 한층 넓힌다. 다뤄질 인물만도 니체, 훗설, 하이데거 등 서양철학의 광범한 사상가들부터, 서울대 박찬국, 이남인 교수, 김형호 정신문화연구원, 동국대 김종욱 교수가 강사로 나선다. 강의는 매주 목요일 오후 7시에 열린다.

선종사도 선사 253명의 행적과

법어, 계승 등이 담긴 <조단집>으로 한 눈에 배울 수 있게 된다. 해인사 강연 학감 법진 스님이 강단에 서고, 강의는 3월 16일부터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7시에 진행된다.

'한문과 불교' 두 마리의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한문교실도 개설된다. 강사는 동국대 박상준 역경위원이 맡는다.

생활문화 강좌도 마련됐다. 그간의 음식문화를 반성하고, 자연과 인간의 올바른 관계를 생각하는 '법상을 다시 차리자' 강좌는 1박2일 남원 실상사 귀농전문학교에서 현장 학습도 곁들여진다. 강의는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개강은 18일에 한다.

조계사 김남수 교육계장은 "앞으로 불교적 가치를 해석하고 실천하는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02)720-1390

김철우 기자

만해백일장 최우철·전민영 대상

"글쓰기는 거친 마음 닦는 또 다른 수행"

대한불교청원회(회장 정상욱)가 3·1절 85주년을 맞아 개최한 '제25회 전국 만해백일장'에서 안양예고 3년 최우철(시·시조, 사진 오른쪽) 학생과 포항영일고 3년 전민영(산문, 사진 왼쪽) 학생이 대상의 영예를 차지했다. 또 특별 상에는 해명보육원의



이제정 씨와 자양포교원의 금당 스님, 창문여의 태선경 학생, 변상학 씨, 장유자 씨가 각각 수상했다. 길가에 서있는 나무와 주렁주렁 매달린 대풍에 바쁘고 복잡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상과 불투명한 자신의 모습을 투영시킨 시·시조부분 대상자 최우철 학생은 "만해 스님처럼 사회비판적 목소리를 지닌, 호소력이

강한 시인이 되고 싶습니다"며 수상소감을 말했다. 산문부문 대상자 전민영 학생 또한 어릴적 백일장에 걸린 체험담에 무당 할머니라는 허구적

인물을 첨가시켜 할머니와 손녀간의 잔잔한 사랑을 담담하게 담아냈다.

이 두 학생들은 "글은 습작과 퇴고의 과정을 되풀이 하며 거칠어진 마음을 닦는 또 다른 수행"이라며 현 상태에 만족하지 않고 더욱 더 열심히 정진해 훌륭한 문학가가 되겠다고 밝혔다.

만해백일장은 3월 1일 동국대 중강당 및 만해광장에서 시·시조부분과 산문부분으로 나눠 진행됐다.

김은경 기자

LA서 대형 봉축행사 연다

5월9일 국제문화센터

미국 남가주불교사원연합회(회장 현일)는 5월 9일 LA 국제문화센터(ICC:International Cultural Center)에서 20만 LA지역 불자가 함께 하는 대규모 봉축행사를 개최한다.

한국불교 미주전과 40주년을 기념해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봉축법요식과 함께 남가주연불교합창단의 축하공연, 러시아 오케스트라 협연 등 다채로운 순서가 마련된다.

한상희 기자

동국대-농협 산학협력협정 체결

동국대(총장 홍기삼)와 농협중앙회(회장 정대근)가 최근 산학 협력의 기본 협정을 체결했다. 농촌의 료지원과 문화·복지사업, 농업 생산과 유통, 생태·환경 농업을 위한 교육·연구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한다는 내용이다.

이들 위해 농협중앙회는 상반기 중 산학 협력 프로젝트를 맡게 될 농협문화복지재단을 설립할 계획이며 불교병원 개원을 위한 자금 지원도 함께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4월까지 공동기획단을 구성해 협력 프로젝트의 방향과 구체적 사업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권형진 기자

경축

동국대학교 제21대 이사장 현해 큰스님 취임

이사장 현해 큰스님

학교법인 동국학원 제21대 이사장 玄海 큰스님의 취임식을 다음과 같이 거행하오니
부디 참석하시어 式典을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법인 동국학원 동국대학교
 동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 명성여자고등학교 / 금산고등학교
 동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중학교 / 명성여자중학교 / 금산중학교 / 홍제중학교
 은석초등학교 / 동국대학교부속유치원
 동국대학교의과대학·한의학대학부속 임상병원 / 경주병원 / 포항병원 /
 경주한방병원 / 분당한방병원 / 강남한방병원
 동국대학교전자계산원

1부 식전행사 (공연)
14:30 ~ 15:20 / 장소: 본관 중강당

2부 취임식
15:30 ~ 16:40 / 장소: 본관 중강당

3부 축하연회
17:20 ~ 19:30 / 장소: 타워호텔 그랜드볼룸(산관 18)

●일시 : 2004년 3월 16일(화) 14:30 ●장소 : 동국대학교 본관 중강당·타워호텔 그랜드볼룸(산관 18)
 * 참석여부를 3월 10일(수)까지 알려주시면 행사준비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법인사무처 ☎2260-3002-6)

동국대학교